

블랑팡과 바이오픽셀: 해양의 심장을 보존하다

1953년 최초의 모던 다이버 위치인 피프티 패덤즈의 탄생 이후 블랑팡은 해양의 발견과 보호를 우선 순위로 생각해왔다. 이러한 헌신의 일환으로 매뉴팩처가 바이오픽셀 오션 재단(Biopixel Oceans Foundation)과 바이오픽셀사(Biopixel Company)와의 새로운 파트너십을 발표한다. 이 협업의 목적은 과학 연구를 지원하고, 혁신적인 복원 해결책을 제안하는 동시에 자연의 보석 중 하나인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Great Barrier Reef)의 보존 필요성에 대한 대중의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다.

블랑팡 오션 커미트먼트 프로젝트를 통해 블랑팡은 수년간 심해 세계 보호에 있어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발전을 가져오는 데 일조해왔다. 매뉴팩처는 기존의 파트너십과 더불어 호주의 바이오픽셀 오션 재단(Biopixel Oceans Foundation)과 멀티미디어 프로덕션 기업인 바이오픽셀(Biopixel)과 힘을 모으기로 결정했다. 심해 연구와 탐험에 특화된 이 두 단체는 보호가 필요한 해양에 대한 대중의 인지도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블랑팡은 바이오픽셀의 활동을 두 가지 측면에서 지원한다. 하나는 특정한 생물 종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보존 결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해양 메가파우나에 관한 과학 연구, 또 하나는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를 보호하고 구해내기 위해 자신의 삶을 바치는 인물들에게 초점을 맞춘 일련의 영상 제작이다. 과학, 혁신적인 기술과 산호 복구, 서식지 관리, 동물 재활과 메가파우나 연구를 포함한 프로젝트를 통해 다각적 측면의 프로젝트는 바이오픽셀과 블랑팡, 호주 당국과 대학, 현지 공동체들 간의 긴밀한 협업에서부터 파생한다. 여기에는 수백 년 동안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와 깊은 문화적 관계를 유지해온 전통 토착도 포함되어 있다.

해양 생물학자 리처드 피츠패트릭(Richard Fitzpatrick)과 애덤 바넷 박사(Dr. Adam Barnett)가 이끄는 바이오픽셀 오션 재단은 상어, 만타가오리(대왕쥐가오리) 같은 해양 생물 종의 보호 구역과 위험에 처한 지역 사이의 움직임을 비교 분석한다. 또한 이 생물 중 일부를 온라인으로 실시간 추적해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를 횡단하는 여정을 관찰하는 것도 가능하다. 각각 [블랑팡](#)과 [피프티 패덤즈](#)라는 애칭이 붙은 두 마리의 고래 상어들처럼 말이다. 2019년 이후 시간의 흐름에 따른 생물 종의 행동, 이동과 서식지 사용 패턴에 대한 믿을 만한 정보를 얻기 위해 몇 차례의 과학 원정이 수행되었다.

재단의 연구 활동과 더불어 바이오픽셀은 매혹적인 고해상 이미지를 통해 대중들이 바다 생태계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바다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각각의 에피소드는 과학적이고

획기적인 연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흥미로운 심해 영상의 일부가 될 것이다. 시리즈는 2022 년 마지막 분기에 런칭할 예정이다.

블랑팡과 바이오픽셀 그룹 간의 협업 목표는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의 건강과 생존에 기여하는 것이다.

바이오픽셀 오션 재단 & 바이오픽셀

바이오픽셀 오션 재단은 심해 세계를 위한 과학 연구, 탐험, 교육,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활동을 촉진하고 수행한다. 우수 학문 기관과 다른 NGO 들과의 파트너십을 맺으며 다양한 암초 보존 프로젝트와 이외에 심해 환경 프로젝트를 후원하고, 이미지와 과학 정보를 제공해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바다에서 연구한 생물 종에 대한 지식을 개선시키며, 더욱 젊은 세대로부터 바다에 대한 열정을 이끌어내는 데 일조한다. 바이오픽셀은 호주의 영상 회사로 자연과 동물 행동, 특히 해양 생물 영상을 전문으로 한다. 2013 년 리처드 피츠패트릭(Richard Fitzpatrick)과 베번 슬래터리(Bevan Slattery)가 설립한 바이오픽셀은 기술, 다이빙, 자연, 위대한 세계를 향한 공통의 열정에서 탄생했다. 바이오픽셀은 케언즈의 제임스 쿡 대학교 파트너십을 맺고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수중 영상 설비 중 하나를 운영하고 있다. 넷플릭스, BBC, 내셔널 지오그래픽, ARTE, 디스커버리 채널 등 세계 유수의 매체들을 고객사로 두고 있다.

링크: www.biopixeloceans.org

블랑팡 오션 커밋먼트

블랑팡에게 있어 전 세계 바다 탐험과 보존은 중요한 가치다. 세계 최초의 모던 다이빙 워치인 피프티 패덤즈의 70 년 가까운 역사 속에서 블랑팡은 이 소중한 자원을 아끼는 탐험가, 사진가, 과학자, 환경보호론자와 밀접한 관련을 맺어왔다. 그리고 이러한 연결고리가 블랑팡으로 하여금 바다와 관련된 중요한 활동과 프로젝트를 후원하도록 이끌었다.

최근 블랑팡 오션 커밋먼트는 프리스틴 씨즈(Pristine Seas) 원정, 로랑 발레스타의 곰베사 프로젝트, 이코노미스트가 개최하는 월드 오션 이니셔티브(World Ocean Initiative), 매년 뉴욕의 UN 본부에서 열리는 월드 오션스 데이(World Oceans Day) 등 해양 관련 프로젝트와 파트너십에 투자해왔다.

현재까지 블랑팡이 바다를 탐험하고 보존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후원한 다채로운 활동들이 실제로 가시적인 결과를 만들어냈다. 이러한 활동 덕분에 전 세계 해양 보호 구역 면적이 4 백만 km² 이상 크게 확대될 수 있었다.